

국내 최고의 어린이 공학 교양서를 만드는 기쁨



박 경 선

출판사 랜덤하우스
kspark@randomhousekorea.com

올해 초 교육인적자원부가 과학기술부와 통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됐다. 그 명칭 변경을 두고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반발을, 과학계에서는 찬성을 주장했다. 이편의 말을 들어보면 이 말이 맞고, 저편의 말을 들어보면 저편의 말이 맞는, 모두 각자의 논리가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재과학부에서 교육과학부로, 다시 교육과학기술부로 변경됐다.

그 이름의 타당성보다 필자에게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새로 바뀐 부의 명칭에 ‘과학’이란 단어가 꼭 박혀 버린 것이다. 과거에 여러 분야의 인재가 우리를 먹여 살렸다면, 이제 간판 주자는 과학 인재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교육인적자원부의 이름이 개명됐다. 이름의 변화가 말해 주듯 우리 시대는 과학 인재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인재만이 자고 나면 오르는 기름 값 때문에 울상 짓는 척박한 자원의 국민을 구출해 줄 것이다. 아침마다 지하철에서 고통스런 비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과학 인재는 새로운 아침을 꿈꾸게 할 밑알이다.

어린 시절, 모래알에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걸 그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손을 씻지 않고 밥상에 앉아 무던히도 혼났던 그 때, 그 이유가 손에 묻은 엄청난 세균 때문이라는 걸 그때 짐작이나 했을까? 커다란 바퀴가 저절로 굴러가는 집채만 한 자동차를 보고 대단하다고 느

꼈던 그 때, 직접 연장을 들고 자동차의 여러 기관을 이리저리 훑으며 마치 의사라도 된 듯 수리할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

하지만 이런 무지 속에서 우리의 어린 시절이 무척대고 순진했던 것만은 아니다. 종이 위에 돋보기를 올려놓고 햇별을 쫓으면 불이 붙는다는 사실을 알고, 종이 대신 개미로 교체해 잔인한 놀이를 즐겼던 어린아이도 있었고, 냉장고에 넣어 둔 물통이 터지는 것을 보고 물이 얼면 부피가 더 커진다는 사실도 알았다.

과학은 우리 주위에서 항상 숨 쉬고 있는 것이기에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쉽고 재미있는 생활 속의 과학도 과학 시간만 되면 지루해지는 것이었으니, 이렇듯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과학과 담을 쌓게 되는 청춘들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 오는 시대는 과학을 모르고서는 엄청난 생존 경쟁 속에서 세파를 헤쳐 나가기가 쉽지 않은 듯하다.

과학이 주도하는 세상에 대비해서 출판계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양질의 출판물이 이를 보여 준다. 각 주제는 그 주제를 담는 형식에 따라 엄청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변형되어 출판된다.

예를 들면, 우주에 대해서 <WHY?> 시리즈에서는 만화와 사진으로, 신기한 스쿨버스 시리즈에서 일러스트와 글로, <앗, 시리즈>에서는 흑백 일러스트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푼다. 이런 여러 가지 표현 방식 중 아이들이 단연 좋아하는 것은 만화다. 몇 년 동안 앞서 나온 시리즈를 비롯한 여러 시리즈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이런 무수한 과학책 속에서 원더랜드의 위치는 조금은 특별하다. 아이들이 열광할 만한 만화로 페이지가 도배돼 있지도 않고, 다른 책들에 비해 정보성도 무척 강하다. 그래서 원더랜드의 독자층은 매니아적 성격이 강하다.

어렸을 때부터 자동차나 우주, 항공, 생명 공학 등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그런 어린이들에게 권할 만한 공학서가 국내에 전무한 실정을 생각한다면, 원더랜드는 어린이 과학 출판계에 보석 같은 존재라 할 수 있다.

어려운 내용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야 하기에 저자와 편집자들이 원고에 들이는 공은 엄청나다. 책의 기획 방향이 가벼운 수준의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기에, 깊이 있으면서 원리를 알려 주는 글을 쓰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 원고 독촉을 매번 하면서도 저자들의 이러한 속사정을 아는지라 매번 마감일을 늦춰 주곤 한다. 이렇게 수없이 원고를 고치면서 어린이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원고가 만들어진다.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하는 필자들이 진땀을 빼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라! 조금은 코웃음이 날 것이다. 원더랜드의 저자들은 정말 화려하다. 이름만 대면 누구인지 알 만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로 포진돼 있다. 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 재직 중인 김도연 박사를 비롯하여, 미생물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KAIST 이상엽 박사, 국내 뇌 과학의 독보적 존재인 서유현 교수, 국내 우주 공학 연구의 터전을 일군 홍용식 박사, 한국무선통신연구원 원장인 최문기 박사, 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인 박창규 박사,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유명제 교수 등 모든 인사 한 분 한 분이 국내 공학계의 발전을 위

해 밑알을 심는 심정으로 이 책에 참여했다. 이러한 간절한 소망이 밑거름이 된 만큼 원고는 알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원고가 탄생된 이후에도 책 만드는 작업에는 엄청난 공이 또 필요하다. 책 속에 나오는 내용들과 관련된 사진을 구하려 치면, 전화통에 불이 난다. 구입할 수 있는 사진도 있지만, 절반 이상은 구입이 어려운 것이라서 여러 업체나 학계에 전화를 해서 어렵사리 사진을 구한다. 또 생생한 그림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러스트 작가와 스케치 작업부터 채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멋진 그림으로 완성한다.

원더랜드의 우아한 자태 뒤에는 숨은 공로자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기에 보다 많은 어린이가 이 책을 보고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우리나라를 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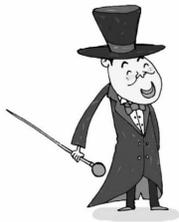
원더랜드는 아동용 공학 시리즈가 부재한 국내 출판 시장의 흐름에 발맞추어 탄생한 아동용 공학 전집이다. 공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 미래 세계의 리더인 공학 인재를 키우는 자양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편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풍부히 쌓아 교양인으로 자라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원더랜드 시리즈의 출간 기조다. 원더랜드를 통해 여러 공학 분야의 발자취와 현재, 미래를 보고 큰 꿈을 꿈수 있는 어린이가 많아하기를 오늘도 꿈꿔 본다.

공학 인재 양성을 위한 저자 한 마디!

21세기는 과학과 기술이 사회, 정치, 제도의 변화를 주도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황은 그에 대한 대비가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내 최고의 공학 석학들은 입을 모아 한 목소리로 말한다. 21세기는 ‘공학이 이끄는 시대’라고! ‘원더랜드 시리즈’는 우리 어린이에게 앞으로 미래 세계를 주도할 핵심 분야의 공학을 한발 앞서 소개해 나갈 것이다.

1. 세상을 뒤흔든 재료 세상 -

재료 공학 김도연(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조욱



이 책이 재료 공학의 생소함을 줄이고 재료 공학 연구의 유익함을 소개하는 쉽고 재미있는 재료 공학 입문서로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앞으로 재료 공학 발전의 차세대 주자가 될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성과도 크지만, 앞으로 이를 일이 더 많은 분야다. 아직도 많은 미생물들이 인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 책을 접하는 분들이 미생물을 이용하여 밝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된다면, 필자는 더 없이 기쁠 것 같다.

2. 하늘을 나는 항공 세상 -

항공 공학 이동호(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이렇게 눈부시게 발달한 항공 우주 기술이 있기까지는 수많은 비행 시도와 로켓 개발 실험 등 목숨을 걸고 도전한 용감한 우주 선구자들의 노력이 있었다. 이 책이 저 푸르고 무한한 하늘에 도전하며 밤낮을 지새운 항공 우주 과학자들을 이해

하는 데 작은 힘이 되고, 새로운 내일을 탐구하는 어린이들에게 또 하나의 자극제가 되기를 바란다.

5. 호기심이 출렁 우주 세상 -

우주 공학 홍용식(전 인하대학교 명예 교수)



우주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우주 관련 서적과 우주 체험 프로그램 등이 풍성해져야 미래의 한국인 우주 비행사를 키우기 위한 든든한 토양을 가꿀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그 토양 가꾸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란다.

3. 머리가 좋아지는 뇌 과학 세상 -

뇌 과학 서유현(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뇌는 우리 몸무게의 2.5퍼센트, 신문지 한 장 정도의 표면적, 한 되 정도의 부피밖에 되지 않지만, 그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상상력은 우주보다 넓고, 인류 문화 창조를 가능케 한 원동력이라 할 수 있다. 모쪼록 이 책이 뇌의 신비를 이해하고

효과적인 공부를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6. 행복을 짓는 건축 세상 -

건축 공학 김석철(아키반 건축도시연구원장)



이 책은 집을 알게 하는 책이기도 하지만, 멋진 집을 짓고 싶어 하는 미래의 건축가를 위한 책이기도 하다. 누구나 아름다운 집에 살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아름다운 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단순히 집 짓는 기술자가 아니라 좋은 집을 구상하고 만들어 내는 사람이 건축가다. 좋은 건축가가 많아야 그 시대의 건축물이 오래 남을 수 있고 그 공간에 후세의 사람들이 살게 된다.

4. 작지만 위대한 미생물 세상 -

미생물 공학 이상엽(KAIST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미생물 공학은 오래된 학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이론

8. 깨끗한 에너지 원자력 세상 -

원자력 공학 박창규(전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원자력이 핵무기나 핵폭발 같은 사고나 환경오염의 걱정이 전혀 없는, 인류의 번영을 가져다 줄 행복 에너지



지로 완성되는 그 날까지 더 많은 젊은 두뇌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책을 읽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원자력이라는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면 더 바랄 게 없겠다.

9. 편리한 자동차 세상 -

자동차 공학 전공민(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맹성준



자동차는 우리 인간과 오랜 시간을 함께 해 온 고마운 동반자다. 이 한 권의 책이 방대한 자동차 공학 분야에 대해 모든 것을 알려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책이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 어린

이 여러분에게 왕성한 호기심을 유발하여 자동차 공학에 큰 매력을 느끼길 바란다.

10. 위대한 생명이 이끄는 세상 -

생명공학 유영제(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원이 별로 없는 조그만 나라이다. 우리나라가 이정도로 잘 살게 된 데에는 어린이들이 공학 기술 분야에 큰 관심을 지니고 자라 성인이 되어 공학 기술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릴 때부터 공

학기술에 관심과 꿈을 가지고 공부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질수록 우리나라가 공학기술 강국이 되어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기획 : 김용환 편집위원(metalkim@kw.ac.kr)